



2019년 4월 18일 발행  
삼육대학교 환경그린디자인 / 환경디자인원예학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  
Environmental Green Design / Environmental Design & Horticulture  
Sahmyook University  
815, Hwarang-ro, Nowon-gu, Seoul, Korea  
02.3399.1742(학과사무실)



본 전시 및 책자는 학사취득을 위한 필수과정이며  
졸업논문을 대신합니다.



[ m. m. m ]

**make your , minimal moment**

단순한 순간으로 만들다



# Contents

19th Graduate Exhibition



학과소개



인사말

# 01

DISPLAY

윤시원 \_16

# 02

VISUAL DESIGN

강영림 \_22 이지현 \_44  
문경훈 \_30 지민주 \_50  
이인기 \_36

# 03

CAMPAIGN

장문호 \_60  
정혜은 \_68

# 04

PUBLIC DESIGN

김수민/김정진/김효중 \_74  
김석훈/여인성 \_82

# 05

FLORAL DESIGN

박근아 \_92 정유라 \_110  
박정민 \_98 윤송은 \_116  
신지윤 \_106

# 06

PRODUCT DESIGN

구민지 \_124  
김정민/양윤지 \_132  
류지예 \_140

# 07

SCULPTURE

김홍욱 \_148



006

## ENVIRONMENTAL DESIGN & HORTICULTURE

### 학과 소개

환경디자인원예학과는 관상식물을 현대 생활 환경에 조화롭게 디자인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Eco-Design 학문을 실천하는 학과로 빠르게 변해가는 현대 사회 공간을 기능성과 미적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시환경디자인, 화훼장식디자인, 그린디자인 관련 교과목을 교육하는 학과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관련분야의 많은 디자이너가 요구되는 21세기를 위해 인간에게 식물이 미치는 심리적, 정서적 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줍니다.

### 교육목표및 목적

환경디자인원예학과는 '좋은 환경은 좋은 사람을 만든다.' 라는 목표로 생활 문화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학문의 이론과 실기를 집중 훈련하고, 졸업과 동시에 국내외의 어느 곳에서나 활동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로 교육시키며, 오염된 환경과 도시를 관상식물로 이용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으로 개선할 수 있는 환경그린디자이너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비전과 진로

환경디자인원예학과 졸업 후 실내조경업을 자영할 수 있으며, 건축회사 및 관련 업체의 조경디자이너, 조경회사, 기업 체의 실내조경관리사, 방송무대장식, 공항실내조경사, 호텔식물 디자인 및 관리사, 플로리스트, 플라워 샵 경영, 컬러리스트 등 많은 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전공분야로 앞으로 현대사회에서 더 많은 환경디자인원예 전공사가 필요로 하여질 것으로 전망되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Welcoming Speech

삼육대학교 환경디자인원예학과(환경그린디자인학과)에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환경디자인원예학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에코 학문을 실천하는 **환경그린디자인학과**와 전통적인 **원예학과**가 융·복합된 학과로 도시환경디자인, 화훼장식디자인, 그린디자인 분야를 선도하고자 학과 교수들과 학생이 하나 되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미니멀”이라는 주제로 환경과 사람이 조화롭게 의미 있는 디자인을 하고자 “MMM; Make your Minimal Moment”라는 제목으로 ‘미니멀한 생각의 순간들을 만든다’라는 뜻과 우리 모두가 깊게 생각하는 우리가 만든 전시라는 의미를 담아 제 19회 졸업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 배우고 느끼고 즐겼던, 자연과 공존하는 디자인 작품을 이번 전시회를 통해 선보이고자 하오니 사회에 나아가 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담아 환영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삼육대학교 환경디자인원예학과(환경그린디자인학과)  
제19회 졸업전시회 작가와 교수일동



## 축사

008



김성익

삼육대학교 총장

산업과 경제의 발전은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너무 많은, 너무 욕심내는 삶은 언젠가 우리를 고갈된 삶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놓고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고민하고 있고 좀 더 단순하며 집중력 있는 생활을 논하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삶을 미니멀하게 구성하여 소소한 행복을 찾는 것이 있습니다.

삼육대학교 환경그린디자인학과와 환경디자인원예학과는 도시와 자연의 공존, 인공물과 자연물의 조화를 이루어 도시를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존을 가르치는 학과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이러한 환경과 지속성을 위해 좀 더 단순화하고 좀 더 소소하게 표현할 수 있는 『MMM: Make your Minimal Moment』 라는 주제로 디자인 작품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전시 공간을 찾는 모든 분들이 창조의 영감이 번뜩이는 작품들을 통해 생명력과 삶의 여유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본 전시를 위해 장소를 허락해주신 우리은행장님과 기획하신 학과 교수님들과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축사

### 손태승

우리은행 은행장



009

안녕하십니까, 우리금융그룹 회장 손태승입니다.

삼육대학교 환경디자인원예학과 제19회 졸업작품전시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졸업작품전시회는 신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해마다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MMM(주제:minimal)”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 또한 단순함과 본질에 주목하는 요즘 트렌드인 ‘미니멀리즘(Minimalism)’과 연관되어 환경과 디자인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어 매우 흥미롭습니다.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많은 현대인들은 도심공원, 플랜테리어 등 생활 전반에 환경디자인과 원예를 접목시키려는 시도들을 부단히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환경·디자인·원예의 본질에 집중하고자 한 “MMM(주제:minimal)”전시는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보다 나은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으로 생각됩니다.

아인슈타인의 ‘나는 간소하면서 아무 허세 없는 것이야말로 최상으로 생각한다.’는 말처럼, 환경과 디자인의 불필요한 요소들을 생략하고 본질에 집중한 “MMM(주제:minimal)”전시 작품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최상의 메시지와 영감을 주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환경·디자인·원예 분야에 융복합적으로 접근한 예비 졸업생들의 예술적 감각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졸업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보다 나은 삶의 공간을 디자인하는 환경디자인 전문가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의도의 글



**김명훈**

기획총괄

정보의 홍수와 과잉 공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하루하루 쏟아지는 무분별한 정보들과 다원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미니멀한 삶의 방식에 점차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고 심플한 형태, 즉 '절제미'를 선호하는 현상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니멀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한 최소주의가 아닌, '양' 보다는 삶의 '질'을 중시하며, 심플하지만 함축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것을 선호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지만 내실은 강화된다' 는, 즉 핵심들을 압축하는 생활방식이 바로 현대인들의 미니멀 라이프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번 전시의 주제 『MMM: Make your Minimal Moment』 는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갖추고 살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비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문제의 해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완전함이란 더 이상 보탬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는 생텍쥐페리의 말처럼, 욕심내어 많은 것을 담다 보면 본래 전달하려던 메시지는 오히려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이에 작가들은 '무엇을 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 '무엇을 덜어낼 것인가'에 집중해서 더욱 간결하면서도 명쾌한 의미가 담긴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23인의 작가들이 생각하는 '미니멀한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오롯이 전달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졸업전시에 도움을 주신 모든 교수님들과 관계자 분들, 그리고 전시를 위해 열심히 달려온 우리 사랑하는 작가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감사의 글

김유선

전임교수



011

큰 사고 없이 전시를 준비할 수 있게 도우신 주님께 많은 지원과 관심을 주신 학교와 학과 그리고 교수님들께 작가들을 내 일처럼 지도해주신 멘토분들께 항상 고맙고 미안한 김명훈 선생님과 문경훈 졸업작품위원장과 위원들께 힘든 길을 택하고 자신과 잘 싸워준 작가들께 그 작가들을 지지해주시고 믿어주신 작가들의 부모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10년 가까이 졸업전시회를 준비하면서 힘들다는 이유로 감사한 마음들을 표현하지 못한 미안함 마음과 함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작가분들 모두들 수고하셨고 당신들의 험난하고 빛나는 미래를 항상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학생대표의 글

012



### 문경훈

환경그린디자인학과 13학번  
제 19회 졸업전시 위원장

안녕하세요. 19번째 환경그린디자인학과/환경디자인원예학과 졸업작품 전시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문 경훈입니다. 이번 전시 주제 Minimalism은 우리 삶 속 깊숙하게 자리잡고 있는 현 세대가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 주변에 많이 자리잡고 있는 개념적, 예술적 영역입니다. Minimalism은 '최소한', '본질적인'개념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생기는 '기능에 충실한', '원형에 가까운' 개념까지 확장되는 예술 사조, 라이프스타일입니다.

이렇게 가깝고 친숙한 만큼 이를 풀어내는 방법 또한 개인적 영역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인 즉슨 모두, 누구에게나 미니멀리즘을 정의하는 방법과 개념은 모두가 다르다 입니다. 1년간의 예술영역, 라이프스타일로서의 Minimalism을 정립하고, 디자인 프로세싱 과정과 작품에 개념을 부여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미니멀리즘 자체로서 풀어내고자 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번 전시를 위해 물심양면 살펴주신 우리은행 은행장님과 삼육대학교 총장님, 학과장님과 지도를 맞아주신 김유선 교수님, 전담해주신 김명훈 교수님과 각 작가들의 멘토 교수님들,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내 외빈 여러분들과 저희의 소박한 전시에 참여해주신 본교 학생여러분, 1년간 서로가 서로를 위했던 23명의 작가들, 저의 부족함을 잘 메워준 부위원장 구민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 학생대표의 글



### 구민지

환경그린디자인원예학과 16학번  
제 19회 졸업전시 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제 19회 환경그린디자인학과 & 환경디자인원예학과 졸업전시 부위원장 구민지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던 3월을 지나 꽃이 만개한 4월의 봄날 전시를 개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번 졸업 작품의 주제는 '미니멀리즘'입니다. 미니멀리즘(minimalism)은 흔히 알려진 '최소한'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어떤 것에 본질을 표현하는 예술사조이기도 합니다. 세계는 발전하고 우리의 삶은 보다 풍족해졌지만 그로 인해 많은 것들의 가치가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 디자이너들이 어떤 것의 본질을 찾고 그것을 알맞게 표현해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23명의 작가들은 각자 저마다의 본질을 찾고 그것을 화훼, 제품, 시각, 캠페인, 공공, 조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 자신만의 미니멀리즘(minimalism)을 완성하였습니다.

'MMM'졸업전시는 저희 23명의 작가들에겐 디자이너로서의 첫 걸음입니다. 그 한 걸음을 위하여 저희 작가들은 지난 1년간 무수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작품을 위한 디자인프로세싱부터 전시를 개최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작가들의 손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첫 걸음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며 작품을 바라보신다면 그 속에 담긴 작가들의 진심까지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발자국인 만큼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발전해나갈 앞날을 생각하며 따끔한 질타보다 따뜻한 격려와 작품을 향한 애정 어린 눈길을 보내 주신다면 앞으로의 새로운 걸음에 힘찬 응원이 될 것입니다.

졸업전시를 준비하면서 감사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장서서 이끌어주신 교수님, 아낌없는 조언을 준 선배, 항상 응원해주던 동기, 후배 마지막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걸어준 저희 23명의 작가 모두에게 글을 통해서나마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졸업전시 부제인 'make your minimal moment' 처럼 전시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이 자신만의 미니멀리즘을 찾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01



# DISPLAY

윤시원 | Minimalism.



016



윤시원

siwne@naver.com





# Minimalism.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Minimalism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

한때 사람들은 미니멀라이프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미니멀라이프의 지침서 라고 할 수있는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라는

책에서는 '버릴수록 행복하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

과연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겨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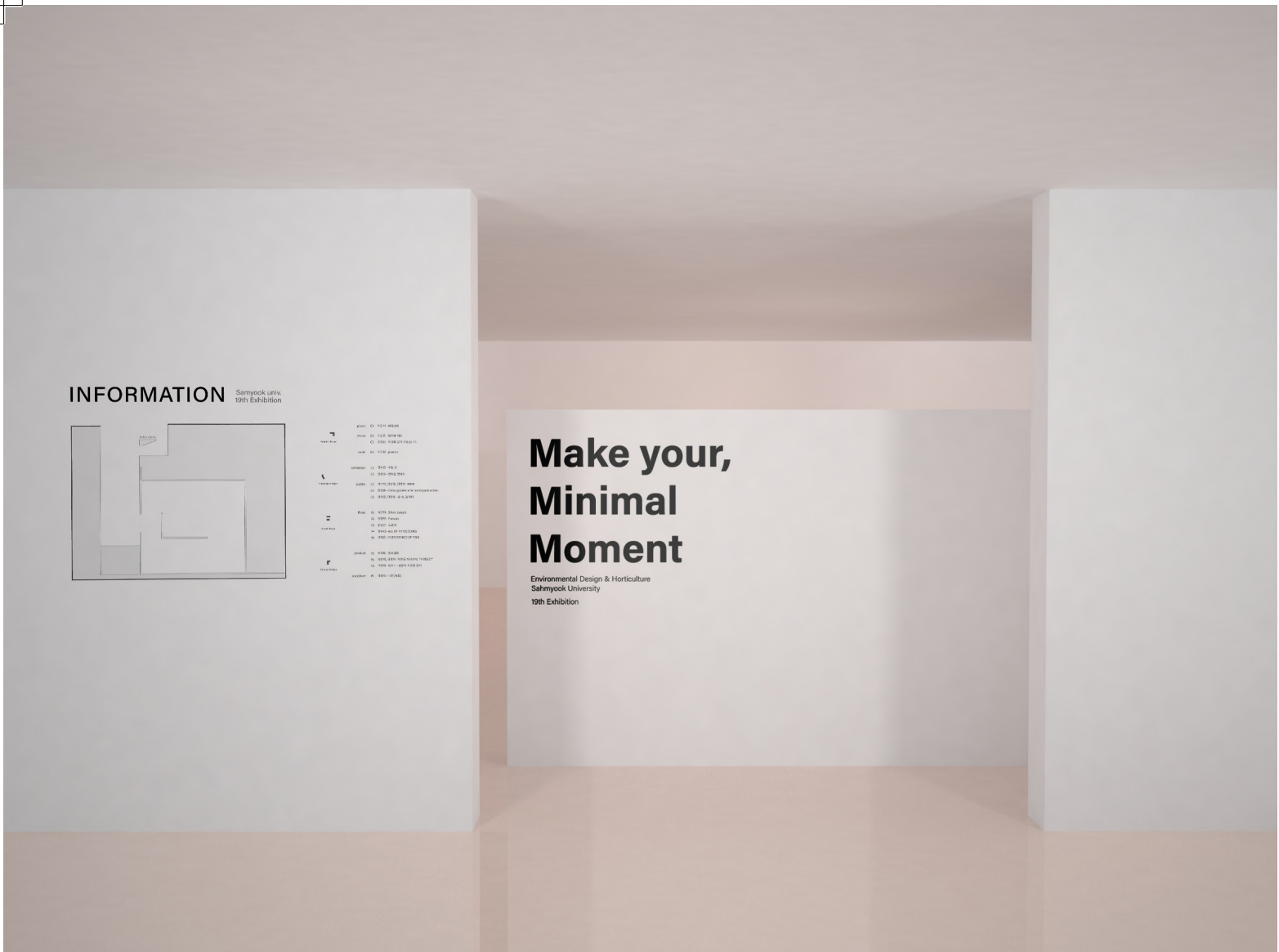
이를 알기 위해서는 Minimalism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Minimalism은 무엇일까? 이번 전시회에서 작가들의 해석에 따른 작품들을

통하여 관람자가 Minimalism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으면 한다.

017





Graphic design



Campaign design



Floral design



Product design



### 2019 졸업전시회 DISPLAY

"완벽이란, 더 이상 보탬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이뤄진다" \_생택쥐페리

더이상 뺄 것이 없을때란 말에 집중을 해보자면, 본질을 남기고 불필요한 것들은 모두 삭제 하였을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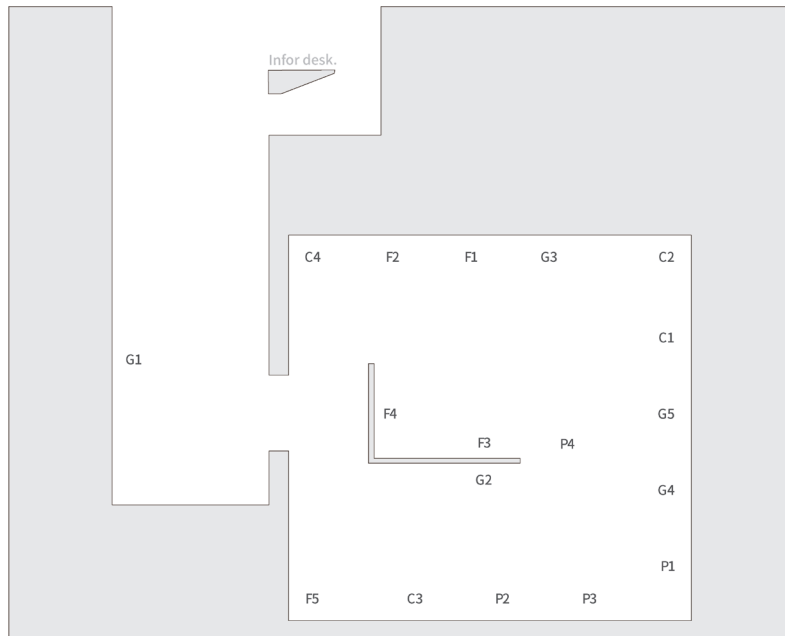
전시회 주제 Minimalism을 디자인적 측면에서 해석하자면 단순함, 간결함을 추구하여 절제된 형태 미학과 본질을 추구하는 표현이다.

따라서 작가는 수많은 정보와 자극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개성과 본질을 잊고 사는 현대인들이 전시를 통하여 각 작가들의 작품과 소통하고, 나아가 자신만의 본질을 상기시켰으면 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 INFORMATION

Sahmyook University  
Environmental Design & Horticulture  
19th Exhibition



- photo** G1 이인기 - 바라보다
- visual** G2 지민주 - 정리와 여유  
G3 강영림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G4 문경훈 - Color guideline for Sahmyook Univ.
- ux/ui** G5 이지현 - planter
- campaign** C1 정해은 - 버릴 것  
C2 장문호 - 행복을 찾아서
- public** C3 김수민, 김효중, 김정진 - MMM  
C4 김석훈, 여인성 - 숲 속, 놀이터
- floral** F1 박근아 - Silent Jungle  
F2 박정민 - FLOWERS  
F3 윤송은 - 도화지  
F4 정유라 - ALL OF MY WEDDING  
F5 신지윤 - COEXISTENCE OF TWO
- product** P1 류지혜 - 알록달록  
P2 양윤지, 김정민 - 자연을 데려오다. "자연공간"  
P3 구민재 - 달자다 : 청춘의 시간을 담다
- sculpture** P4 김홍욱 - 내면(内面)





02



# VISUAL DESIGN

강영림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지현 | planter

문경훈 | Color Guideline  
For SAHMYOOK Univ

지민주 | 정리와 여유

이인기 | 바라보다



022



강영림

@y\_yy\_yy

fjqm9468@naver.com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미니멀리즘은 대상의 본질만 남기고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는 예술적 흐름을 뜻한다.

미니멀리즘을 사람에 대입해서 개인이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본질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봤다.

개인의 개성을 응원하는, 나를 나답게 만드는 의미를 담아 식물을 이용해 패턴으로 표현했다.

023





024



패턴 디자인의 요소는 무궁화다.

우리에게 친숙하고 아름다운 꽃, 무궁화는 예전부터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이 거론된다. 그 자체로도 인상적인 꽃이지만 태양과 함께 피고 태양과 함께 진다는 특성을 가져 역사적으로 신비롭게 표현되는 꽃이다.

무궁화는 대한민국의 국화이기도 한데, 그 누구도 무궁화를 공식적인 국화로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오래전부터 무궁화의 나라로 소개되고 자연스레 나라를 대표하는 꽃이 되었다는 점에서 인상 깊다. 3.1운동 100주년인 2019년, 민족의 수난기에 상징 화가 되어주던 무궁화를 주제로 나답게, 나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자는 마음을 담아 표현했다.





# 一片丹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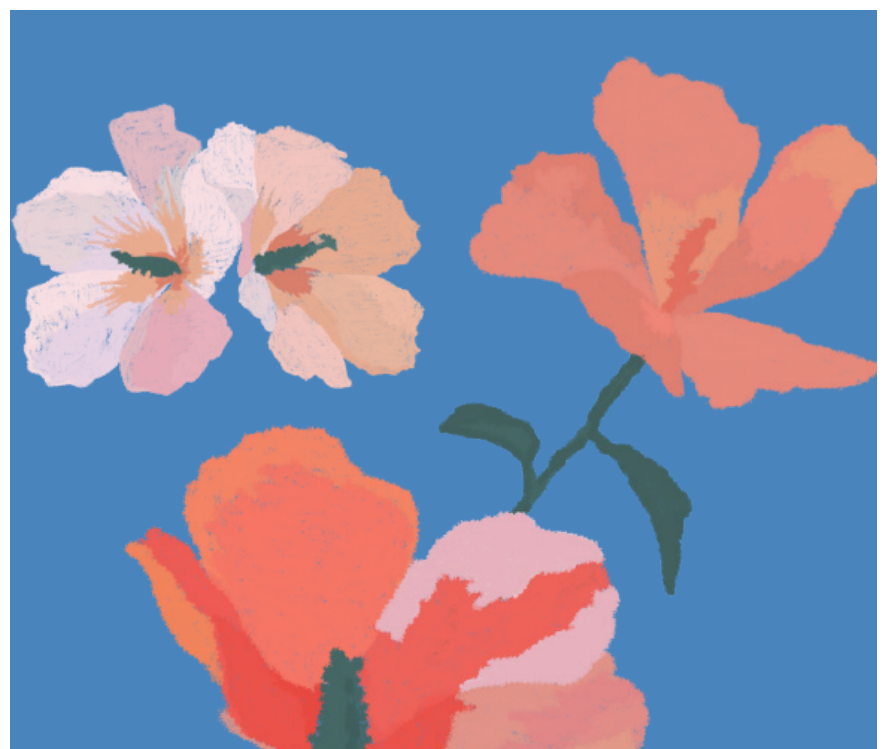
025

일편단심, 무궁화의 꽃말이다.

한자로 풀면 한 조각의 붉은 마음으로, 옛날 충성심이 강한 신하가 죽은 자리에 무궁화가 자랐다는 얘기가 전해진 것에서 꽃말이 유래되었다.

내가 주목한 것은 무궁화의 꽃말이다.

나답게 살기 위해서, 행동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지는 것이 중요한데,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일편단심의 마음이라면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개인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무궁화 그 자체를 미니멀하게 표현하면서도 무궁화의 의미를 생각하며 나를 나답게 만들자는 주제를 담았다.



Q. 몇 개의 무궁화를 그렸을까?

총 일곱 개의 무궁화를 그렸다.

무궁화의 모양도 색도 모두 제각각이고 각 꽃송이의 색에도 톤의 변화를 주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하나의 꽃을 보더라도 빛에 따라 그리고 관점에 따라 다른 면, 다른 색을 인식하는 것을 표현했다.



026



그림은 색연필로 그리듯 표현했다. 영성하고 자유로운 느낌으로 패턴이 친숙하게 느껴진다. 패턴의 배경색은 팬톤컬러 barely pink를 중심으로 더 강한 채도의 색, 더 밝은 명도의 색을 그라데이션 했다.

디자인적으로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색과 모양을 조화시켜 '변화'를 표현했다. 그리고 그 변화들은 패턴으로 반복된다.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꽃말을 담고 있는 디자인으로 나를 나답게 만들기를 바란다.





028





030



문경훈

rylynn0915@gmail.com



# COLOR GUIDELINE

For SAHMYOOK University [Web Ver.]

경계가 허물어지는 흐름에 각 대학은 고유의 경쟁력을 기르고자 UI(University Identity)를 확립하는 추세이다.

UI 확립과 동시에 '기능적 미니멀리즘'을 추구하여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교의 구성원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함에 중점을 두었다. 배색과 색상또한 미니멀한 색상을 제시하여 적용될

대상의 기능에 집중 될 수 있는 배색을 제시하고자 한다.

031





032



삼육대학교가 제시하는 전용색상의 활용면에서 부족함을 제시하고자 전용색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과 활용의 한계를 제시, 색채가이드라인의 제작의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자연환경**  
Analysis: Inside Character Color of Sahmyook Univ.

삼육대학교를 대표하는 자연환경  
물안산,계명호,교목,교화를 선정

개는 EOS M3카메라를 이용하여  
세보정 및 보정 없이 각 대상을  
3번씩 촬영

자연광 환경 맑은 날 일출 3시간 후  
부터 일출 3시간 전 사이 실시

'Adobe Photoshop' 환경에서 촬영  
사진을 Mosaic 후 Eyedropper tool  
을 이용하여 색상 추출

03 삼육대학교 색찾기

대상지 오자이크

색상분석

대표색채 추출

촬영단  
촬영후  
오자이크  
분석

삼육대학교를 대표하는 자연환경을 조사하여 학교의 UI를 담아낼 수 있는 삼육대학교 색을 제작하고자 한다.





**삼육대학교 전용색상 분석**  
Analysis "Trade Character" Color of Sahmyook Univ.

**[ Research Synopsis ]**

**설문조사 범위**  
삼육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설문조사 배경**  
삼육대학교 재학 및 졸업생이 생각하는 삼육대학교의 특성, 대표상징(이미지, 이미지 색채)과 교훈의 이미지 색채를 파악하고 조사하여 연구에 참고

**설문조사 시기**  
2018.05.20 ~ 2018.06.01

**설문조사 대상**  
삼육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20~30대 남녀

03 삼육대학교 색찾기

**[ Form ]**

Naver Form

삼육대학교 색찾기 및 활용서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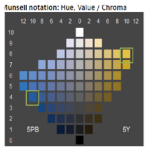
Color Wheel

0.26 (12.2%)*	0.55 (24.8%)*
0.07 (3.0%)*	0.76 (33.5%)*
0.02 (0.8%)*	0.02 (0.8%)*
0.05 (2.2%)*	0.02 (0.8%)*
0.07 (3.0%)*	0.11 (4.8%)*
0.01 (0.4%)*	0.02 (0.8%)*
0.02 (0.8%)*	0.02 (0.8%)*
0.02 (0.8%)*	0.02 (0.8%)*
0.02 (0.8%)*	0.02 (0.8%)*
0.02 (0.8%)*	0.02 (0.8%)*

학교의 구성원이 생각하는 학교의 이미지를 반영, 연구하여 삼육대학교 기본색상 구성에 포함한다.



**면셀 면적 비례 /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원칙**  
Munsell's Area Portion Principle / Main, Sub, Accent Color Principle



**주조색** 주조색이란 배색의 골격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면적과 기능을 차지하는 것을 주조색이라고 한다. 약 60~80%를 차지하는 주조적인 역할을 하는 색채로서 직접 사용된 색이며, 가장 많은 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보조색** 보조색이란 주조색을 보완하여 배색이 기능하게 하며 형식이 구획적이고 심전적으로 보여지는 색들을 보조색이라 한다. 전체 면적의 20~30%를 차지하는 색채로서 주조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하기도 하고 동일한 색상-채에서 신채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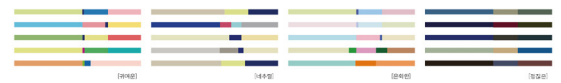
**강조색** 강조색은 가장 작은 면적으로 효과를 극대화 할 때 사용하고 배색의 지루함을 덜기 위해서 사용하며 또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주조색과 보조색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도 사용하는 색채이다. 약 5% 이하의 면적을 차지하는 색채로서 상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며 지루함을 덜고 재미를 주기도 한다.

4 x 10 = 40  
8 x 10 = 80

색채관련 비전공자와 비전문가를 위해 색채사용 방식을 제시하여 다양한 이용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능에 충실한 가이드 라인의 당위성을 부여하여 기능적 미니멀리즘을 추구한다.

05 색상활용

**배색 띠**  
Color Combination 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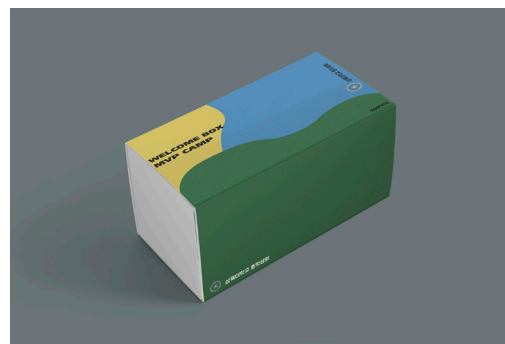


배색 띠는 실제 사용의 예시이며 미니멀한 배색을 주로 활용하여, 색이 입혀진 외관이 아닌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기능의 미니멀리즘을 추구하고자 한다

기본색상의 색상범위내에 있는 색채를 이용하여 배색띠를 제시, 활용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배색띠는 실제 사용의 예시이며 미니멀한 배색을 주로 활용하여, 색이 입혀진 외관이 아닌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기능의 미니멀리즘을 추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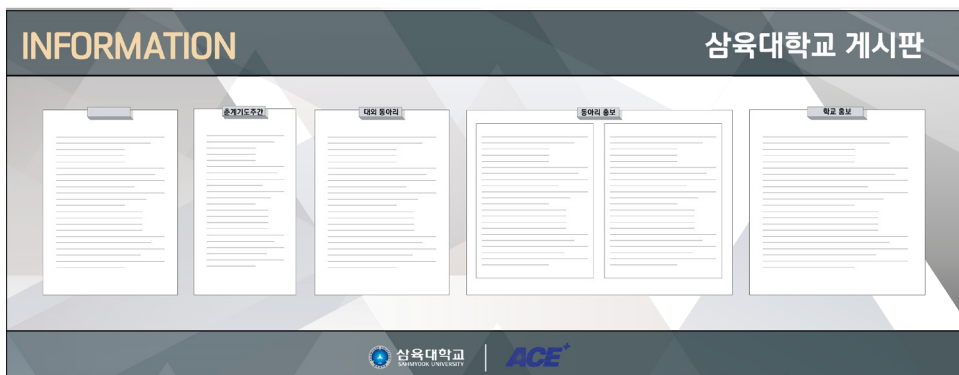
색채가이드라인 이용자 중 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인 학교 홍보 아이템 패키지에 적용 한 모습을 제시한다.



색채가이드라인을 사용하여 활용 할 수 있는 학교 홍보물에 색채를 적용한 예시를 제시하여 활용의 다양성을 제안



색채가이드라인 제작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중 학교 관계자 및 학교 조경팀이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의 시안을 제시한다.



학교 내에 배치된 게시판 및 안내도의 색상을 미니멀한 색채를 이용하여 정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한다.



036



이인기

@Pictrue\_Lee

703ingi@naver.com



# 바라보다

내가 나를 바라보다.

인간은 태어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것들을 자신의 눈에 담고 많은 사람들을 보고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그러한 삶 속에서 왜 자기 자신은 바라보지 않을까?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는 말에 의문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번 작품은 그러한 모든 이들에게 잊고 지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037





프로젝트 ‘바라보다’는 미니멀리즘에서 본질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촬영을 진행하였다. 자신 본연의 모습을 잊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대상으로 사회생활, 학업, 취업 등 다양한 사회적 압박 속에서 점차 본인의 모습을 숨기고 포장하여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짧은 순간이라도 자기 자신을 되찾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으며 직접적으로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 시절을 바라보고자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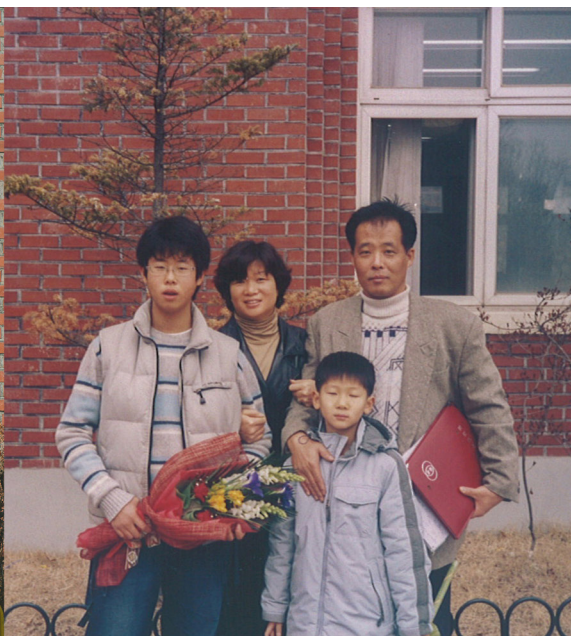
프로젝트 ‘바라보다’는 모델들의 본연의 모습을 리포토그래피 작업으로 과거의 자신을 현재의 내가 바라보는 형식으로 촬영을 하였다. 모델들이 ‘그때 그 시절’의 모습을 바라보며 떠오르는 다양한 감정들을 사진 속에 담아보았다.

“사진은 과거의 기록이자 현재의 이야기이다”





040







### Rephotography

과거의 사진을 현재의 장소에 덧대어 찍음으로써 세월의 대비를 보여주는 기법.

리포토프래피는 같은 사이트의 반복 사진 촬영법이다.

두 이미지 사이에 시차가 있는 것으로,  
특정 영역의 그 “때”와 “지금”의 관점이다.

과거를 직접적으로는 바라볼 수 없지만 이 촬영기법으로 진행하며 모든 모델들이  
충분히 자신의 모습을 잠시나마 돌아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프레임 안에서 우린 잠시나마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걸로 됐다.  
시간이 지나 이 순간 또한 언젠가 잠시나마 돌아갈 수 있는  
그 시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바라보다'는  
작가에게 사진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준 프로젝트이다.

'사진이 어떻게 해야 잘 나오는가'에 초점을 맞추며 살던 나에게  
'사진을 왜 찍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든 프로젝트이다.

이번 사진은 기교가 뛰어나거나 색감이 화려하거나 비교적 멋지고 화려한 사진들이  
아니지만, 나에게 있어 의미 있는 사진들이다.

사람들이 잊고 살던 본인의 모습.  
즉, 인간의 본질에 대하여 돌아본 동시에 내 인생 속 사진의 본질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된 좋은 시간이 되었다.  
작품을 보는 모든 분들이 살아가면서 잊고 살던 원래 본인의  
모습에 대하여 되돌아 보며 본질에 대한 많은 생각이 떠오르길 바란다.



044



이지현

@hyunnnn\_eee

hyunnnnyy@gmail.com



# pla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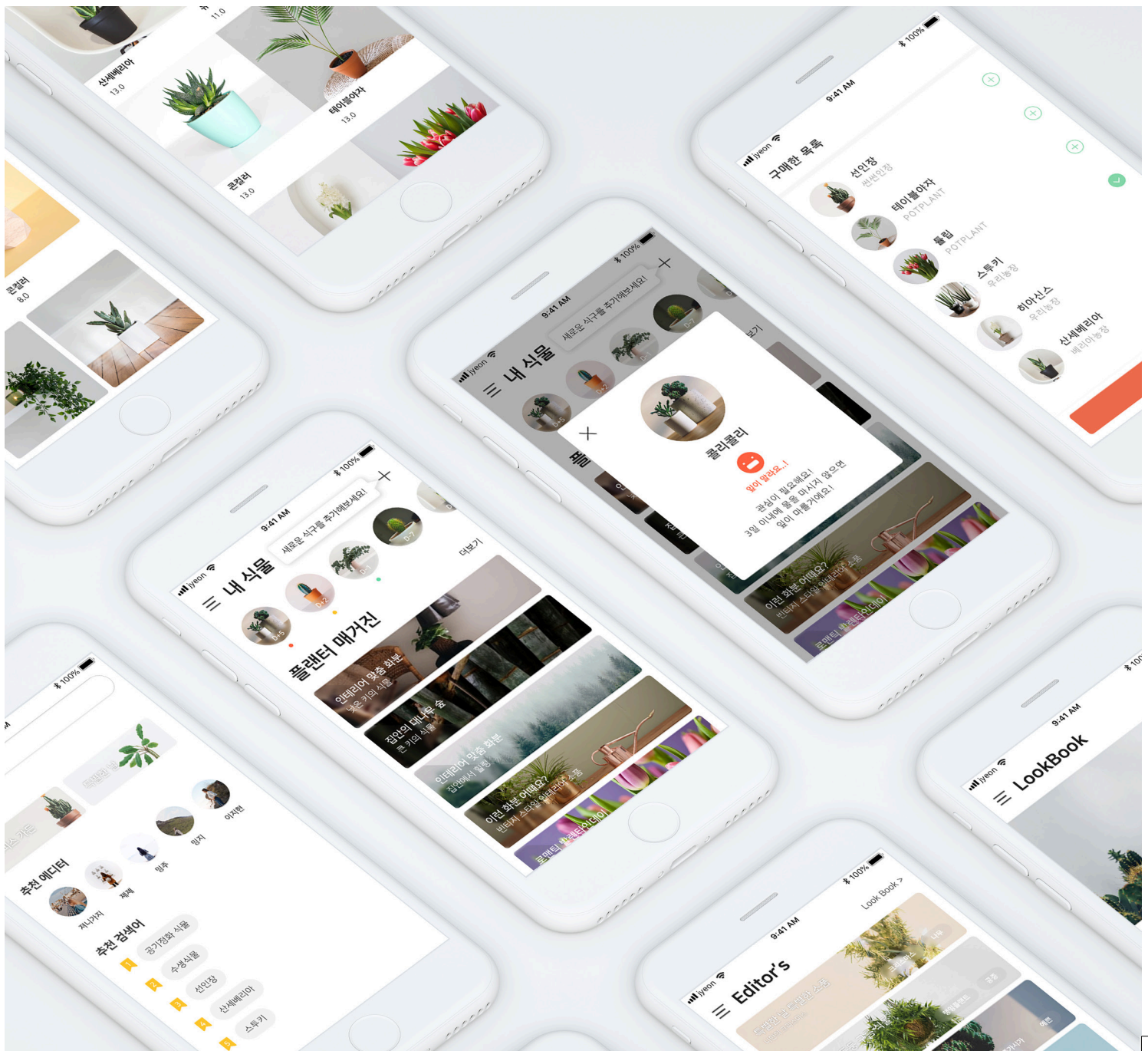
처음 우리 집에 식물과 함께 발을 들인 설레던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오랜 시간 곁을 머물러주지 않고 금세 곁을 떠났던 식물도 있었을 거예요

planter 와 함께라면 처음 느꼈던 그 설렘 오랜 시간 간직할 수 있어요!

식물 키우는데 꼭 필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게 적절한 시기에 알려드릴게요

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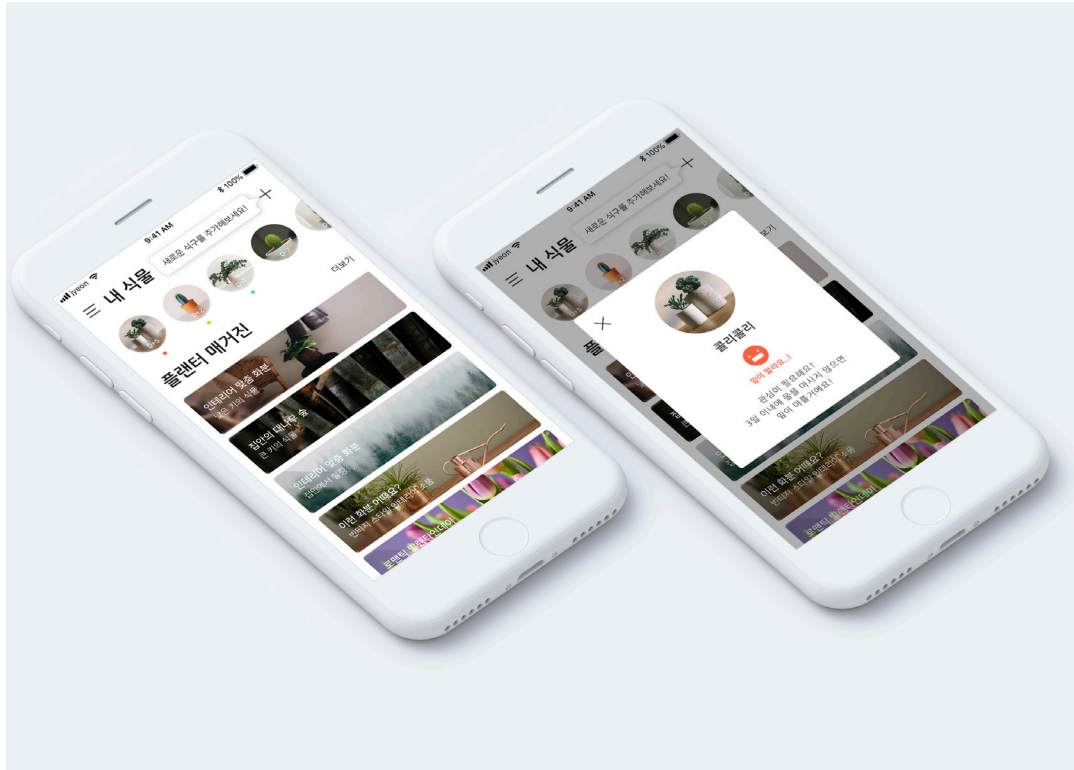




0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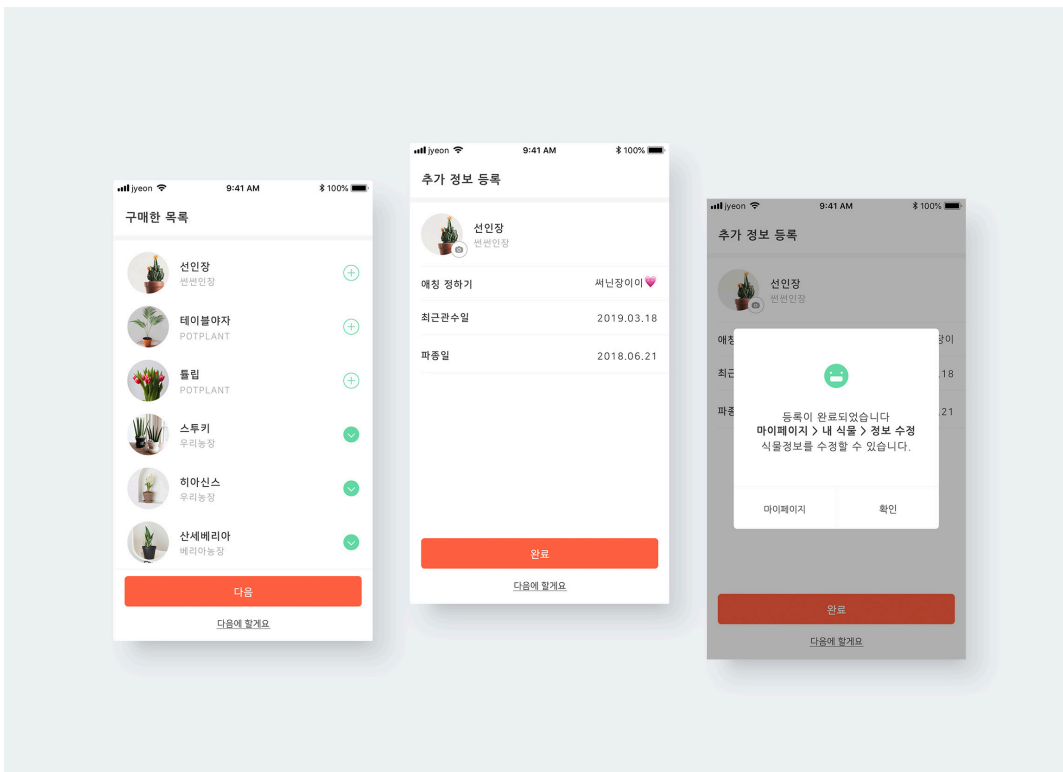
### main.

우리 집 식물의 목마름 상태를 홈 화면에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 add plant.

플랜터 스토어에서 새 식구를 만났다면, 약간의 추가 정보만 등록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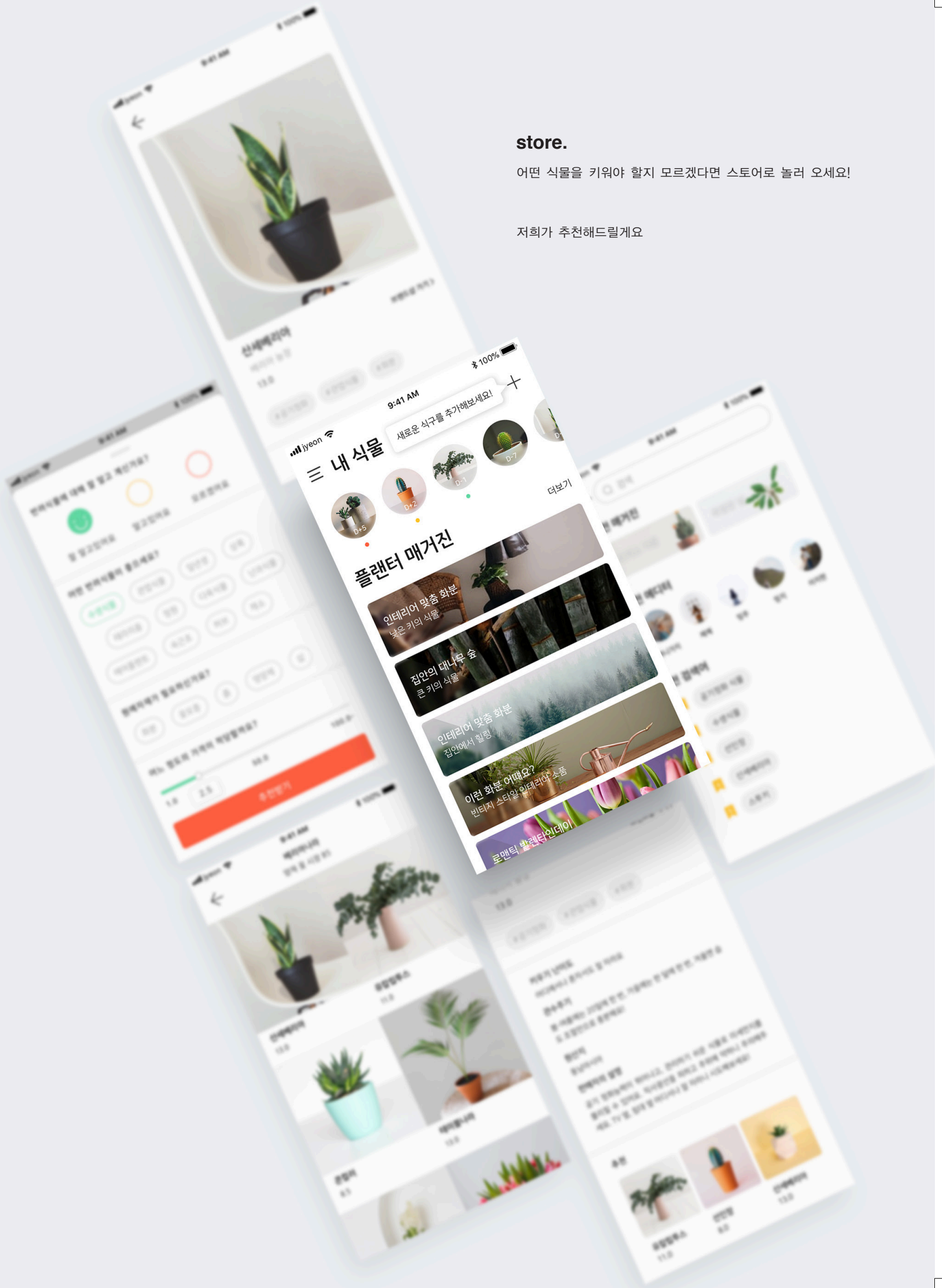




### st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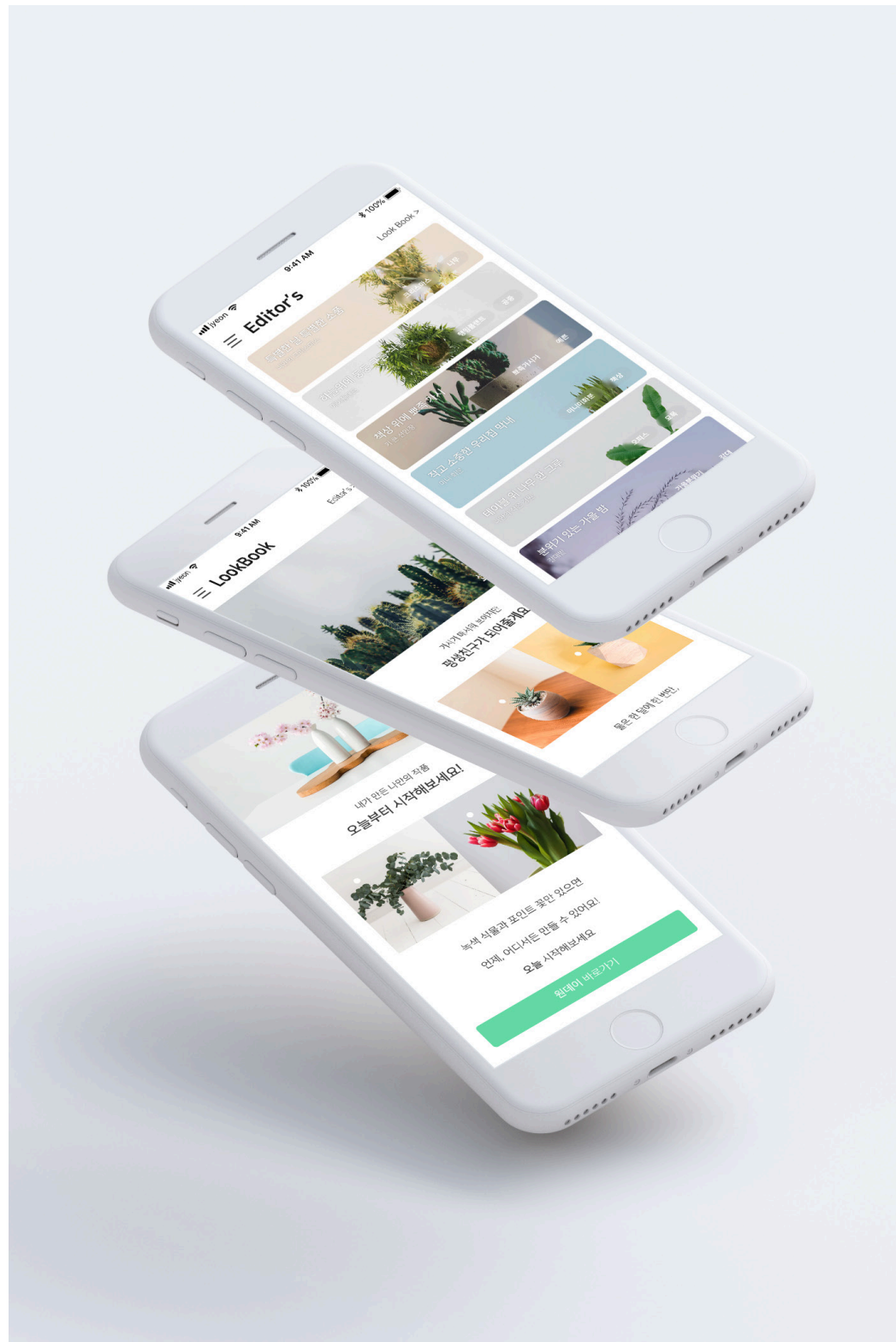
어떤 식물을 키워야 할지 모르겠다면 스토어로 놀러 오세요!

저희가 추천해드릴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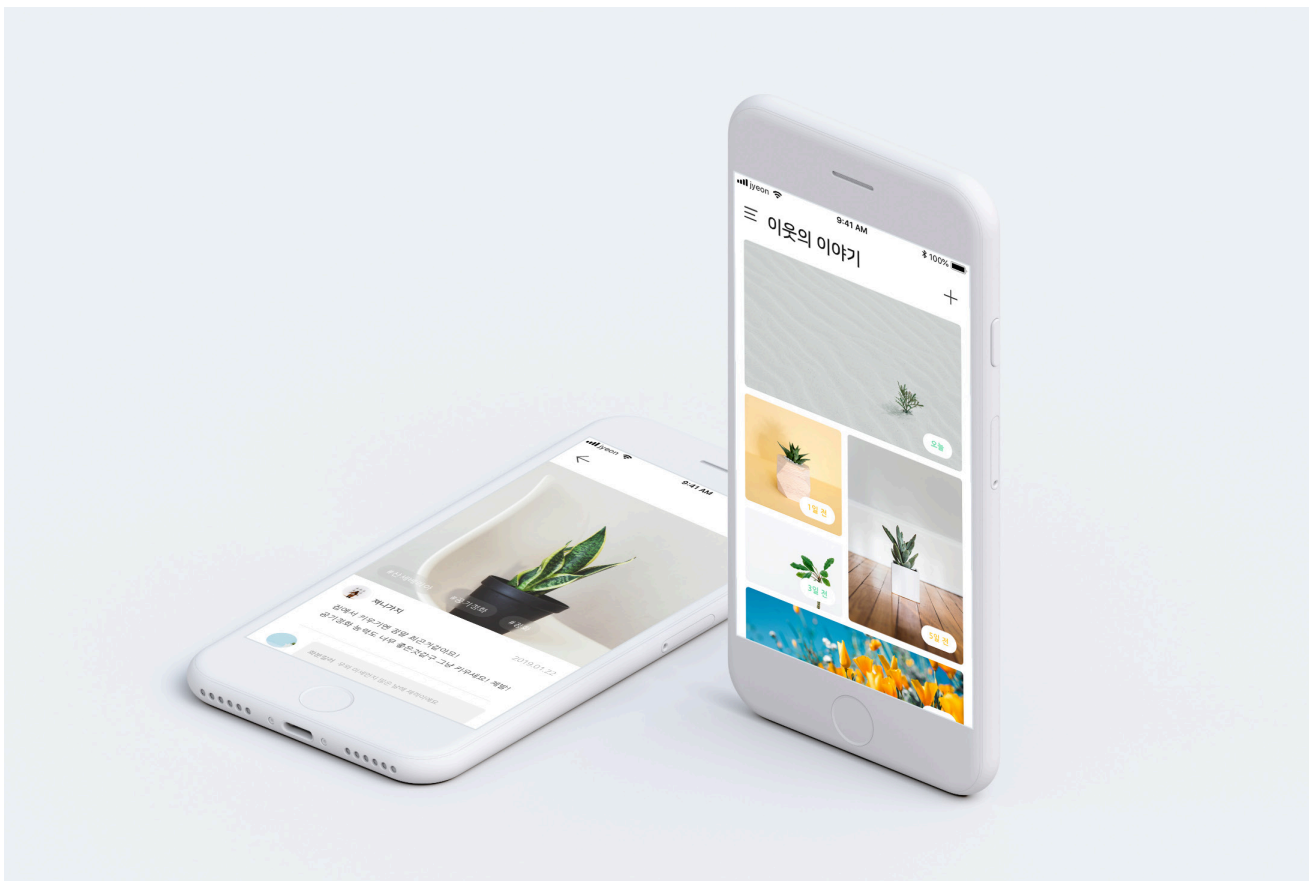
048



**magazine.**

내 식물을 위한 에디터의 추천 글과 트렌드를 알려드릴게요





**community.**

플랜터를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사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와드릴게요



050



지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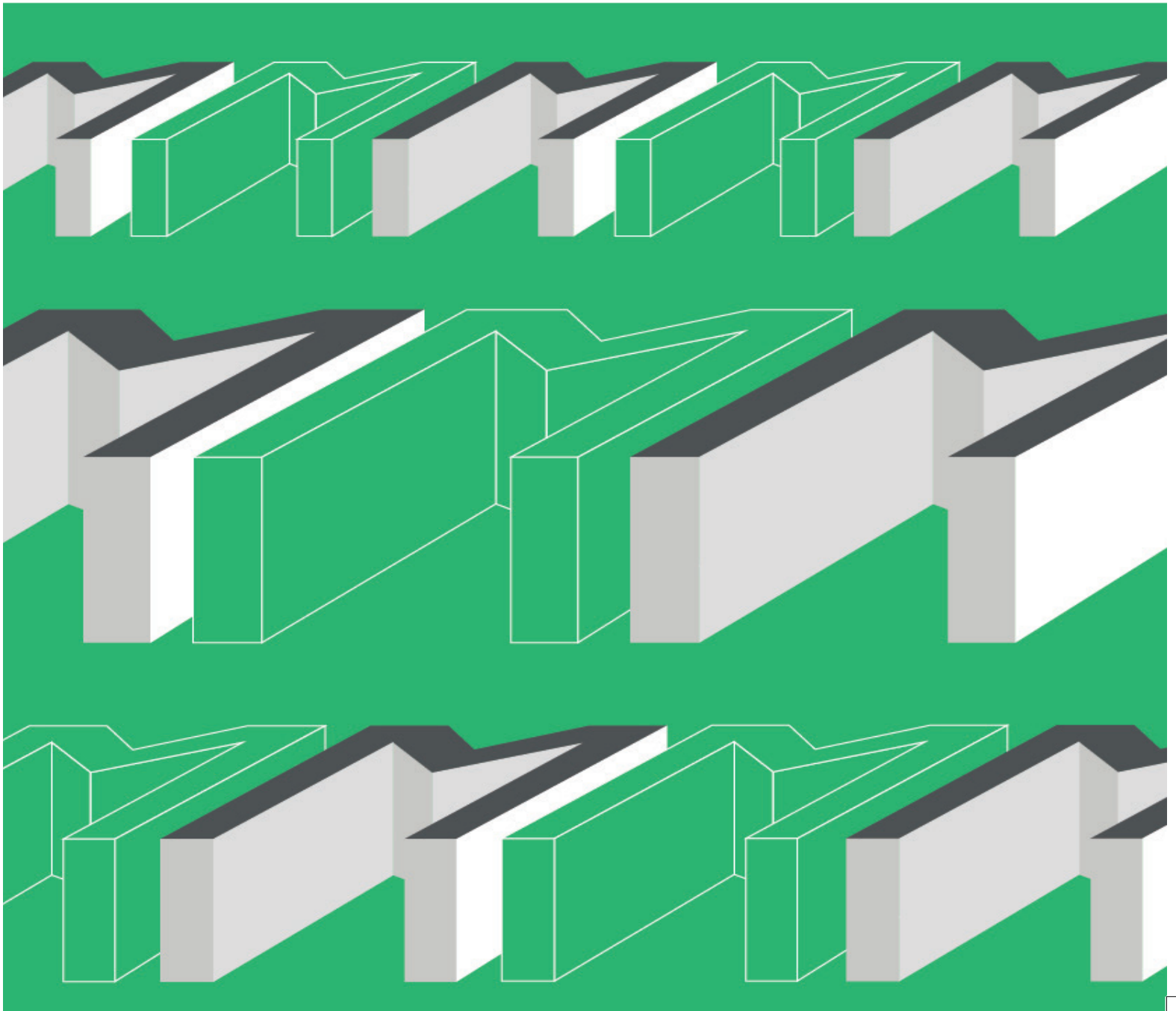
qldmq11@naver.com



# 정리와 여유

미니멀리즘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흰 배경, 깔끔함 그리고 필요한 물건들만 배치된 공간이 떠올랐다. 나는 미니멀리즘이란 맥시멀의 반대 의미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미니멀리즘은 그것이 생각이든, 공간이든, 인간관계이든 무언가가 그것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닌 이전보다 한결 정리된 상태이며, 이로써 편안한 마음과 여유를 갖게 된다고 생각한다. 정리와 여유라는 말이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미니멀리즘과 관련하여 일러스트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표현한 일러스트들은 각각의 상황 그리고 연관된 사물들이다.

051





# 정리

052

## [청소 도구]

빗자루와 쓰레받기다. 사람들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청소를 한다. 이를 미니멀리즘과 관련하여 생각했으며, 특징 사물을 확대하여 일러스트로 표현했다.

## CONCEPT

미니멀의 반대 의미인 맥시멀을 영어 스펠링으로 조각조각 형태를 그려 나타내어 맥시멀을 정리함으로써 미니멀을 얻는다 라는 의미를 갖고있다.



C 7 M 3 Y 86



C 63 M 8 Y 99







C 52 M 7 Y 98



C 90 M 61 Y 100 K 43



-  C 25 M 40 Y 65
-  C 50 M 50 Y 60 K 50
-  C 55 M 60 Y 65 K 40
-  C 25 M 25 Y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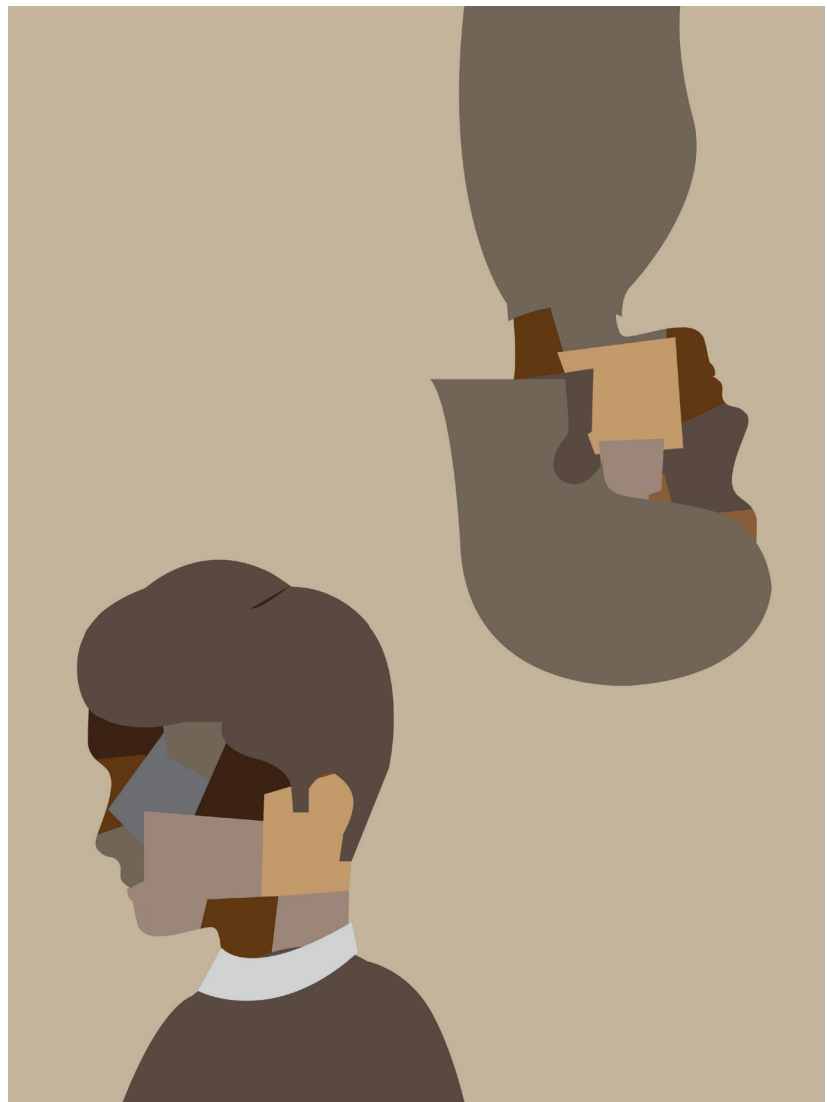
053

### **[등진 사람들]**





미니멀리즘의 정리에서 인간관계의 정리를 표현했다. 나는 사람들이 억지로 힘든 관계를 유지하기 보다는 때때로 그 관계를 끊어낼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CONCEPT**

두 남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며, 서로 등진 채 앞을 바라보는 모습이 힘든 관계를 끊어낸 모습을 나타내고자 했다.





-  M 100 Y 100
-  C 15 M 100 Y 90 K 10
-  C 80 M 10 Y 45
-  C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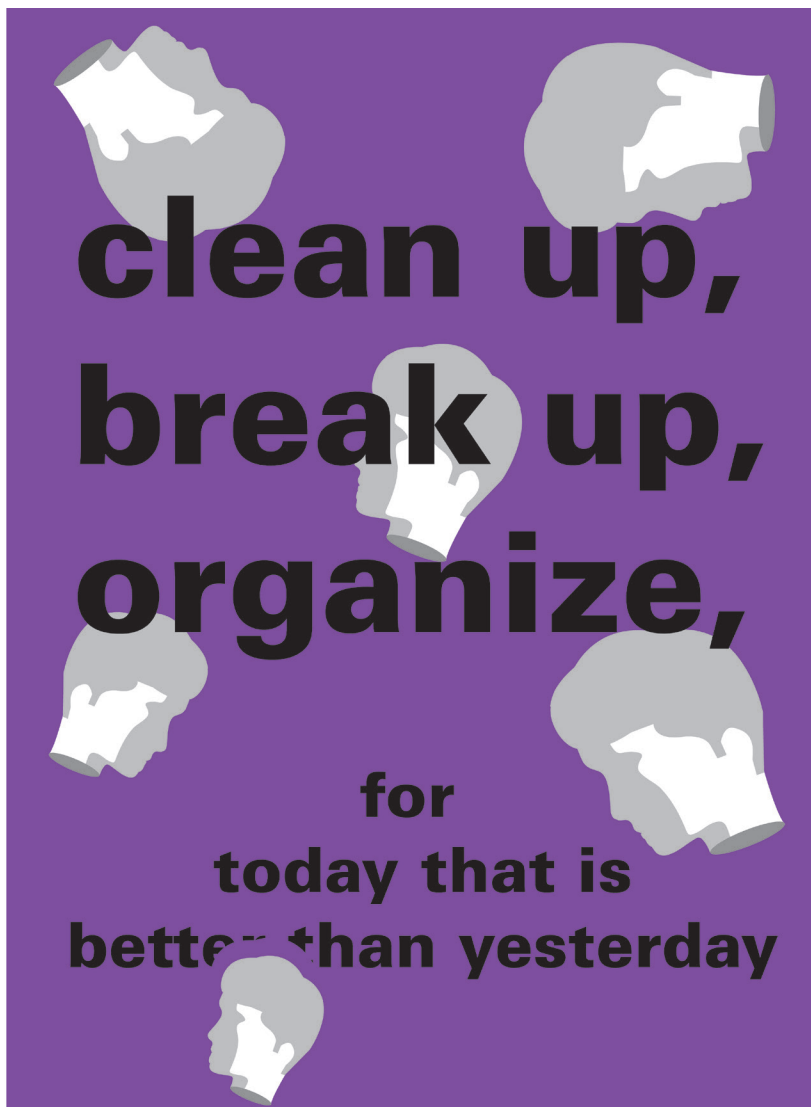


**[생각버리기]**

머릿속 잡다한 생각을 정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가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고, 쓸데없는 많은 걱정들로 머리가 아팠던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생각에서의 미니멀리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CONCEPT**

사람이 생각을 하는 머리부분을 잘려나가게 표현함으로써 생각을 버리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했다.







**[정리하라]**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위해서 정리하라'  
타이포그래피이다.  
각각 상황에 맞는 '정리하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적어 표현했다.

**CONCEPT**

그림이 아닌 글자가 주인공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그림보<sup>055</sup>  
다는 글자 크기를 크게하여 표현했다.

-  C 7 M 3 Y 86
-  C 63 M 8 Y 99
-  C 52 M 7 Y 98
-  C 90 M 61 Y 100 K 43





# 여유

056

## [웃으니까 좋다]

관계에서의 정리를 통해 여유를 찾은 사람들이 웃음을 되찾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다.



## [여유가 흘러 넘친다]

사람에게 여유가 생기면 커피 한 잔 할 시간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내가 좋아하는 민트초코 음료를 그림으로 나타냄으로써 여유를 표현하였다. 음료가 흘러 넘치는 모습을 통해 '여유가 흘러 넘친다' 라고 글로 표현했다.





**[DO YOU FINE?]**

향수를 통해서 시간적 여유를 표현하였다. 외출 준비를 마치고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향수를 한 번 뿌리는 것을 생각하며 그렸다. 여유가 있냐고 묻는 물음을 'DO YOU FINE?'이라고 바꿔 표현했다.

057

**[I ran hard today]**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문득 운동하는 것이 떠올랐고, 그 중에서 농구가 떠올랐다. 스포츠 종목을 통해서 활기넘치고, 자유로운 느낌을 주고자 했으며, 농구대와 농구공만을 표현함으로써 상황묘사를 했다.

농구공과 농구대가 녹아 흘러 내리는 모습을 통해 열심히 운동을 한 사람의 땀 흘리는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03



# CAMPAIGN

장문호 | 행복을 찾아서

정혜은 | 버릴 것



060



장문호

kakaotalk\_moonho2516

jmh2516@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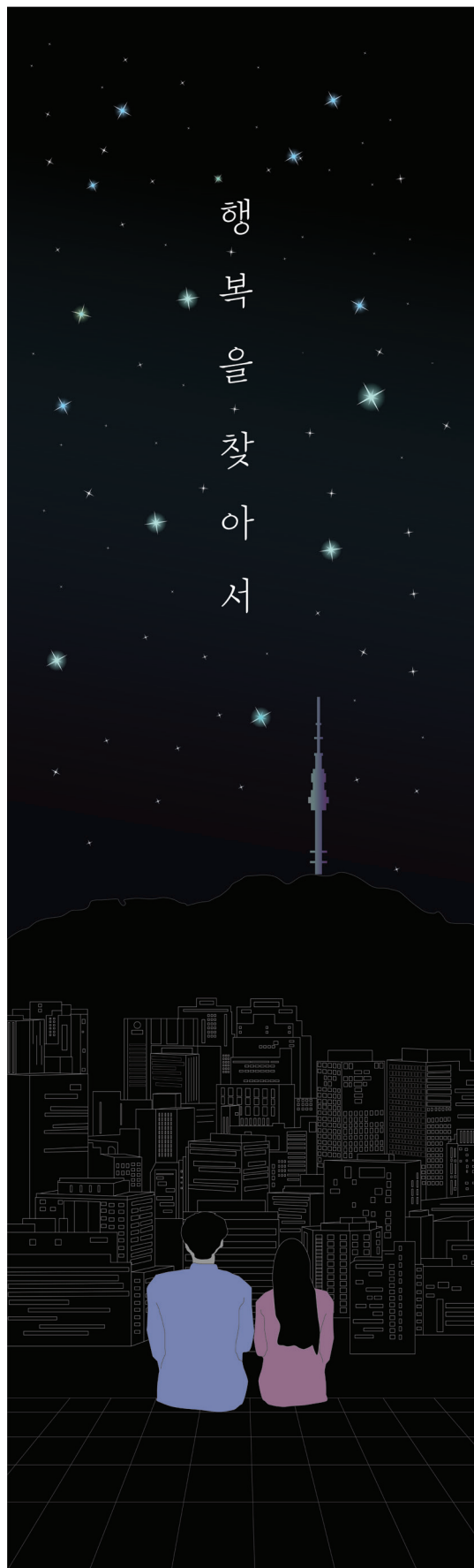


# 행복을 찾아서

각박한 사회에 살며 지친 현대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작가가 생각하는 진정한 미니멀라이프와 행복의 의미를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다. 영상이 끝나고 행복했던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의 행복을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1990년대 어린 시절 방 느낌이 나도록 공간을 구성하였다.

061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기'

현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눈에만 보이는 화려한 성공만이 행복이라 생각하고 주위에서 찾고 느낄 수 있는 행복들을 소홀히 하며 자신이 불행하다 생각한다. 충분히 우리 삶에서 행복들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잘 찾지 못하고 있다.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과정이 인생에 미니멀리즘을 적용시킨 것이라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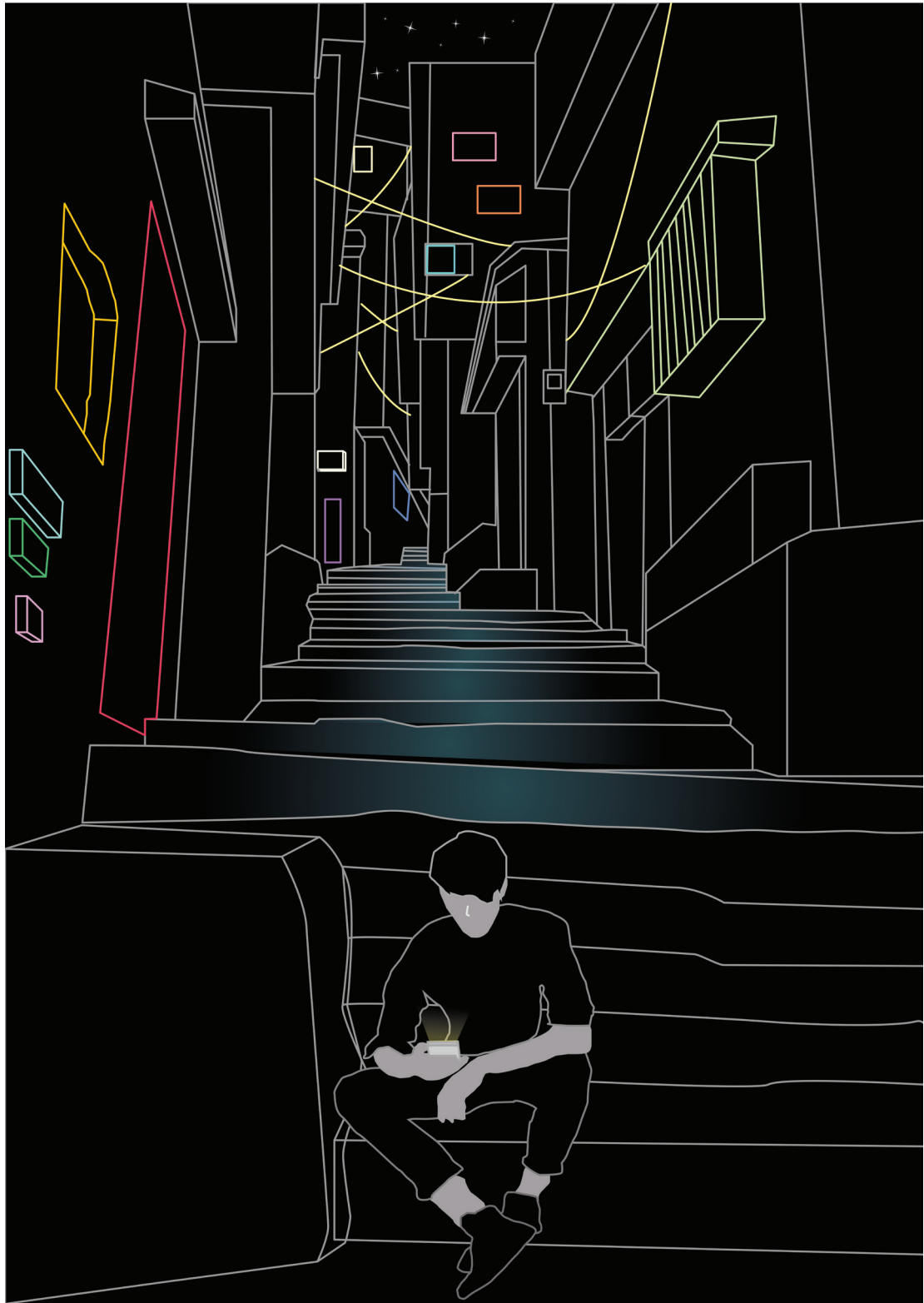
이 영상은 두 명의 주인공들이 각자 힘든 삶 속에서 각자의 행복을 찾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영상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밤하늘은 힘든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고, 별들은 우리가 인생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들을 의미한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엔 주인공들이 찾은 행복들이 별이 되어 아무것도 없는 밤하늘을 환하게 비추는데 이는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행복들이 우리들의 인생을 환하게 밝혀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0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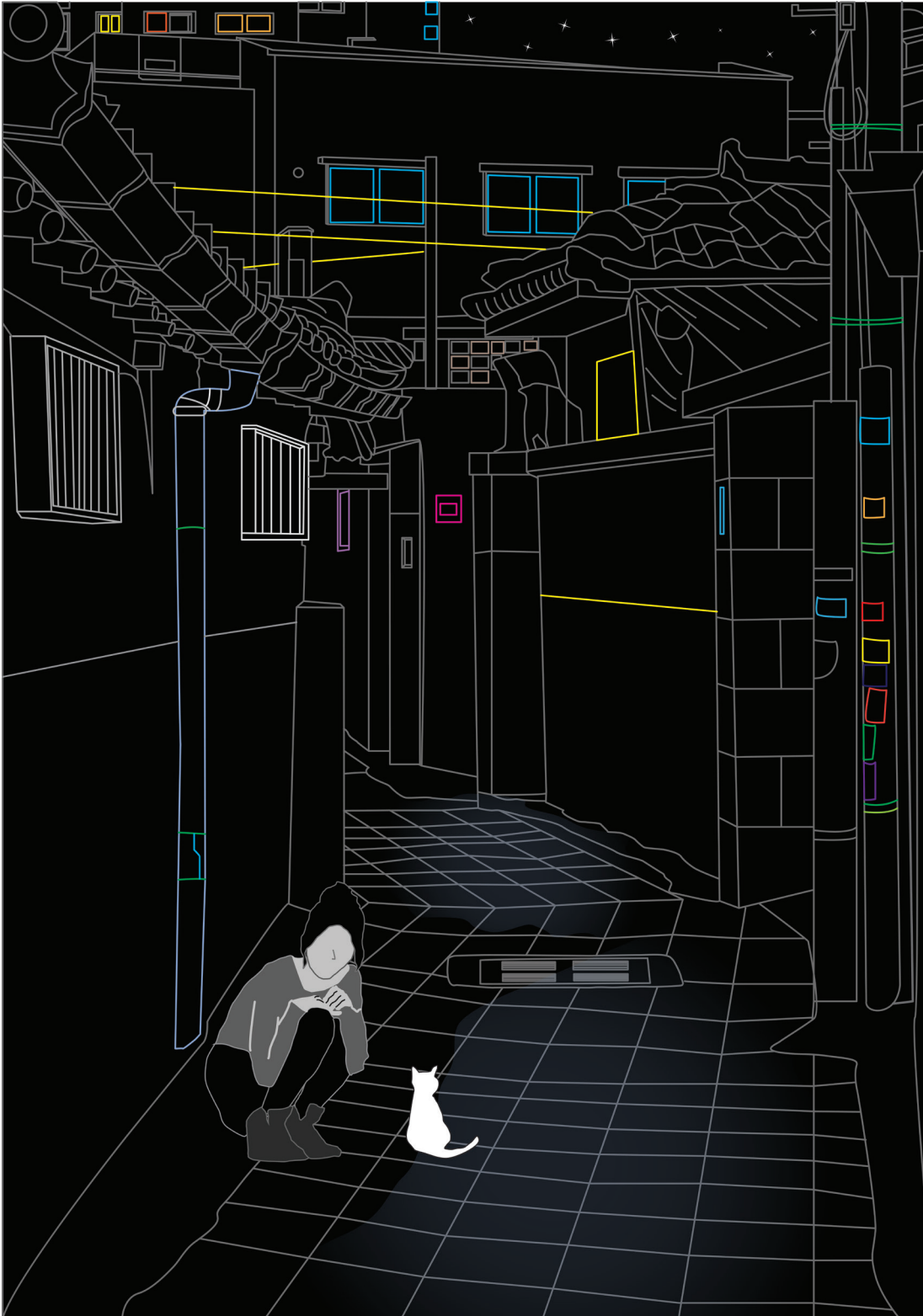




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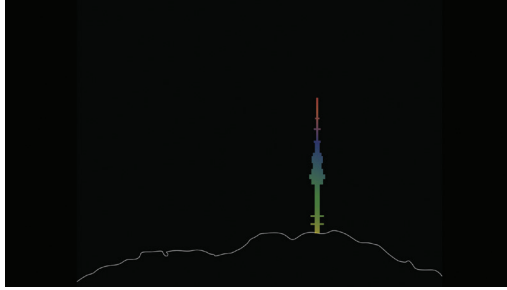


0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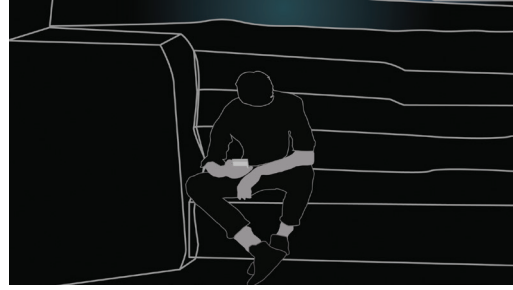
영상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엽서로 제작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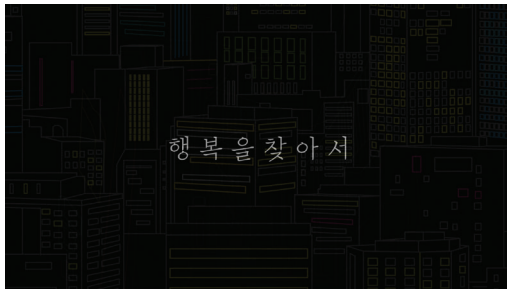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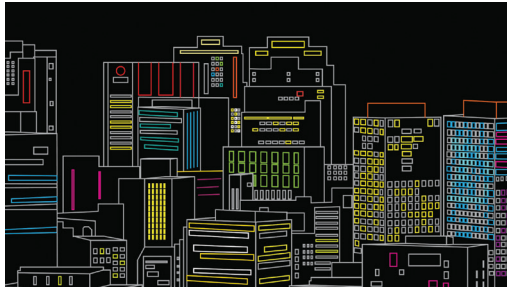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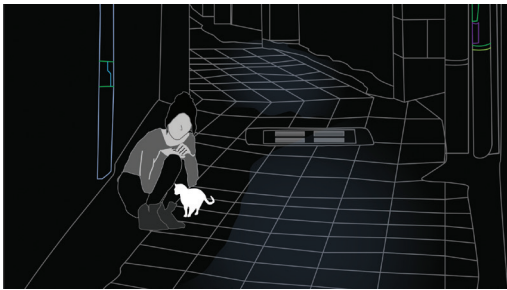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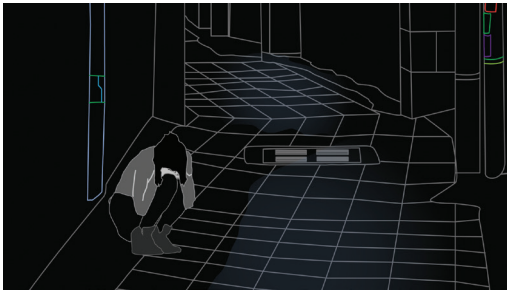


0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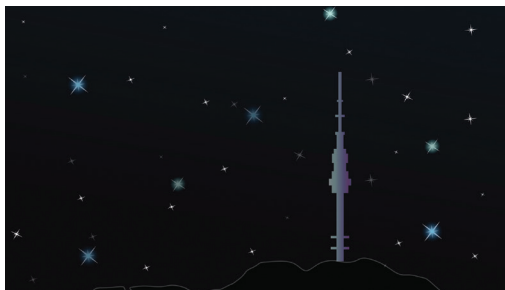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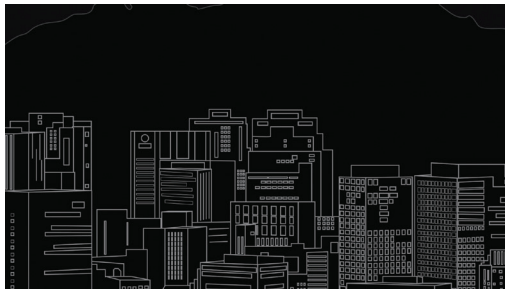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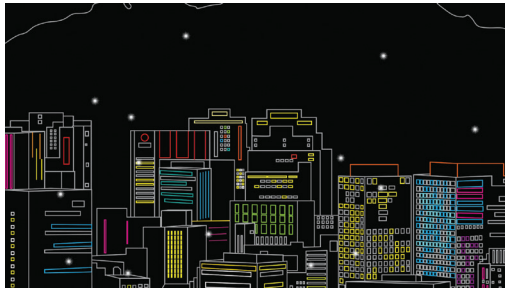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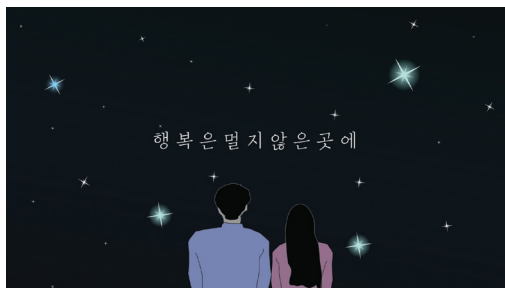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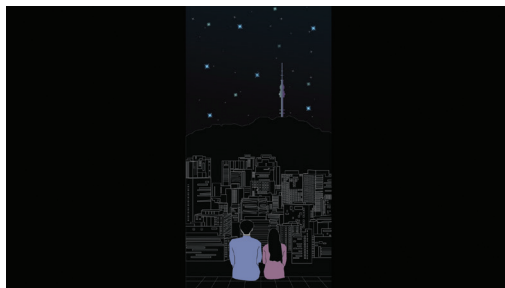


#4



067

#5





068

정혜은

@eun.\_is

starry1727@naver.com



# 버릴 것

[Have to throw away, will throw away]

나는 페미니스트다.

'미니멀리즘'이라는 주제는

나로 하여금 최근 우리 사회에 일고 있는 작은 움직임을 떠올리게 했다.

그것은 바로 '탈코르셋' 운동이다.

탈코르셋 운동은 사회가 규정한 여성성에 저항하며,

여성에게 암묵적으로 강요됐던 미의 기준을 타파하고, 꾸미지 않을 자유를 주장한다.

과도한 장식과 꾸밈을 지양하고, 본질에 집중하는 미니멀리즘은

탈코르셋 운동이 지향하는 바와 맥락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069





070



“예쁘다”  
 “여자는 꽃이다”  
 “요즘은 예쁜 애들이 성격도 좋아”  
 “화장좀 해! 화장은 예의 아니야?”  
 “보통에서 마름되기”  
 “개강여신 되는 법”  
 “다이어트는 최고의 성형”

“넌 꾸미면 진짜 예쁘겠다”  
 “아름답지 않은 여자는 없다”  
 “여자는 긴머리지”  
 “미모는 권력이다”  
 “예쁜 애들은 다 알아”  
 “남자들은 그런거 안좋아해”  
 “넌 무슨 여자애가 여성스러운 구석이 없니”





당신은 정말 꾸밈을 강요한 적 없는가?

당신은 정말 꾸밈을 강요 당한 적 없는가?



꾸미지 않을 자유가 없다면, 꾸밈의 자유는 허구적이다.

꾸미지 않아도 괜찮다. 예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인형이 아니라 사람이다.